

## 山地開發(草地造成)에 대한 問題點

高麗大學校 農科大學

孫 元 夏

土地産業의 向上은 그 나라 富強의 母體로 되어 왔음은 東西 어느나라에서나 史實로서 認定된다. 天惠의 인 與件도 있겠지만 그 資源을 人爲의 으로 잘 管理하여 利用하고 生産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은 數言을 要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自然資源에 대해 次元높게 關心을 갖게 된 것은 그다지 오래 되지 못한 것이 事實이다. 南北으로 分斷된 우리들의 森林形便은 有利한 條件보다 不適合한 素因(降雨, 土壤, 氣溫)이 더 많다.

우리의 森林事情을 概括的으로 一瞥하면 森林面積은 657萬 ha(施業地 523萬 ha)로서 全國土面積의 66%이며 ha當 林木蓄積은 22m<sup>3</sup>이다.

參考로 世界의 主要 森林國과 유럽 各國의 ha當 林木蓄積을 살펴보면 表 1과 같다.

表 1. 各國의 林木蓄積(ha當)

國 名	蓄積(m <sup>3</sup> )	備 考
미국(U. S. A)	86	"World trends and prospects" FAO(1967)
일본(Japan)	81	
캐나다(Canada)	81	
소련(U. S. S. R.)	110	
서독(West Germany)	145	"European timber trends and prospects"
스위스(Swiss)	278	
덴마크(Denmark)	115	FAO(1976)
핀란드(Finland)	77	
노르웨이(Norway)	62	
스웨덴(Sweden)	98	
오스트리아(Austria)	239	

1970년부터 現在까지의 森林面積과 蓄積量의 變遷來歷을 보면 表 2와 같다.

表 2. 森林面積과 林木蓄積量의 動態

年度	森林面積(ha)	蓄積(m <sup>3</sup> )
1970	661萬ha(施業地: 545萬ha)	68,772,956
1975	663萬ha(施業地: 537萬ha)	105,352,224
1979	657萬ha(施業地: 523萬ha)	117,281,414

앞의 表 2에서 보이면 森林生産地(施業地)는 減少傾向을 보이고 있으나 그 蓄積量은 增加趨勢를 나타내고 있다는 事實은 森林地에서 林木들의 生長이 良好하다는 것을 認知할 수가 있다.

이러한 森林의 實相을 所有別로 크게 區分하면 表 3과 같다.

表 3. 所有別 森林規模

所有別	面 積	蓄 積
國 有 林	20%	42%
私 有 林	80%	51%

表 4. 所有別 森林面積과 森林蓄積量의 動態

所有別	年度別	面 積(ha)	蓄積量(m <sup>3</sup> )	備 考
國有林	1970	1,168千	32,241,479	ha當 蓄積
	1975	1,134千	38,755,006	
	1979	1,126千	42,457,156	39m <sup>3</sup>
民有林	1970	4,283千	31,064,374	ha當
	1975	4,237千	48,816,297	蓄積
	1979	4,110千	52,521,205	12m <sup>3</sup>

最近 10年 동안에 걸쳐서 國有林과 民有林 實態의 變遷相을 보면 다음의 表 4와 같다.

表 4에서 國有林과 民有林의 林相을 比較 檢討한 바와 같이 全林野 面積의 20%를 차지한 國有林에 서만이 貧弱하나마 겨우 우리나라 森林의 面貌를 찾아 볼 수 있는 實情이다. 한편 民有林(公有林과 私有林)은 全林野 面積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所有規模가 매우 零細의이고 瘠薄한 林地가 大部分이어서 立木度가 極히 不良한 곳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傾斜도 緩慢하고 部落近處에 있는 山林이지만 開墾하지 못한 채 放置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곳들을 開墾 活用하여 生産性を 높인다면 土地利用面에서나 資源의 增殖面에서도 커다란 意義와 名分은 찾을 수 있는 일이다.

요즈음은 모든 公害問題에 대하여 甞사람들을 關心

을 集中하다시피 銳敏하여 졌다. 따라서 林業에 대한 要求는 옛날과는 그 質을 달리하여 林産物 生産에 못지않게 레크레이션面에 比重을 두고 있는 現實이다. 數 10年 내지 數百年을 두고 이룩된 森林은 自然의 主宗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森林의 蠶蝕은 반드시 排除되어야만 할 것이다. 100年을 透視하고 設計하는 次元 높은 森林에 대해서는 均衡있고 合理性을 지닌 銳智로서 다스려야 할 것이지 近視眼的인 經濟觀念에서만 森林을 다룬다면 닥쳐올 災殃을 막을 도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森林生産地는 森林地로서 多角的인 効用을 높이도록 力點을 두어야 할 것은 너무나 當然한 일하기에 重言이 必要없다. 그러나 緩傾斜의 低生産性林地를 開拓者의 精神으로 가꾸고 經濟性을 높히는 作業은 國家的으로나 社會的으로 有益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個人的으로도 보람을 찾을 것이다. 먼 앞날을 내다볼 때 겨우 成林시킨 森林地를 어떠한 形態로서든지 다른 用途로 전환시킨다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非生産的인 임을 銘心해야 할 것이다.

結論的으로 森林造成地는 계속 山林으로 保續토록 하여 理水機能을 비롯하여 森林의 効率을 充分히 活

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低位山林生産地는 多角的 利用에 관한 技術的인 檢討를 거쳐 生産的으로 活用할 方案을 講究할 必要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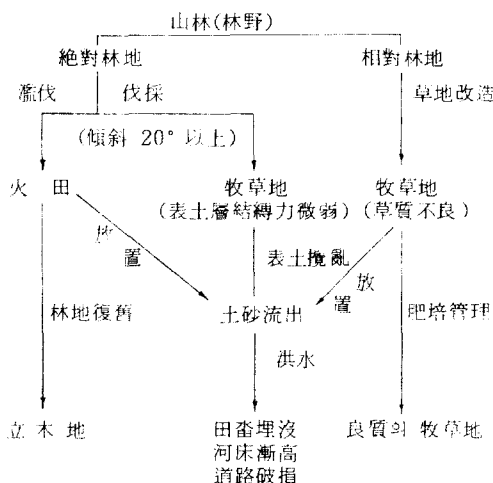


그림 1. 山林(林野) 利用方法에 따른 被害